흑신앙 백신앙

(요8:12~20)

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3.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1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5.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16.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17.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18.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19.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20.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흑신앙 백신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흑신앙과 백신앙

한자에 黑자와 白자 뜻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黑자 안에 '검다'라고 하는 뜻이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뜻이지마는, '사리에 어둡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흑(黑)신앙, 하면 사리에 어두운 신앙, 또 백(白)신앙 하면, 白이라는 말도 희다는 뜻이 들어있지마는, 분명하다 명백하다 밝다 이런 뜻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앙, 그러면 사리에 밝은 신앙을 말합니다.
즉 흑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상황, 육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가치,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 사물, 대상,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이치가 분명하지가 않고 깨달음이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이겁니다.
백신앙은 반대로, 주어지는 상황이라든지 만나게 되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사리를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가게 되는 것을 백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흑신앙은 신앙이 사실은 아니지요.
그런데 분명히 이 세상에 대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물에 대해, 깨달음이 전혀 없고 무지한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이름을 붙이긴 합니다마는, 그건 이미 엄밀한 의미에서는 참 신앙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상태다 이겁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일까?
주님께서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초막절의 행사 중에, 성전을 보면 맨 처음에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그 사이에 유대인 여자의 뜰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 여자의 뜰에, 사다리로 올라가야만 점화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황금촛대가 4대가 서있고 초막절에는 그 촛대에 불을 붙이는 의식을 행했었는데, 이 의식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광야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막에 정말 가로등하나 없는 어두움 가운데서,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황금촛대에 점화하는 작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어두움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면 밝음 가운데서 행하게 되고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둠 가운데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주님과 바리새인과의 논쟁 가운데 '참'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생명의 빛을 얘기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그 논쟁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 스스로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당신 스스로의 자기 증언은 옳지 않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해도 옳은 이유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참과 거짓의 기준은 뭐냐 하면, 주님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부터 와서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은 오해와 참된 이해의 기준은, 내 마음이 지금 하늘나라를 알고 있느냐, 내 마음이 천국을 지금 여기서 느끼고 있느냐, 천국을 느끼면서 이 세상 것들을 대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세상 것들에 대한 내 느낌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의 그릇됨과 참됨을 가려주는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나의 자기 증언이 참되다.
나는 천국을 지금 느끼고 있다, 천국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천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자기 증언은 바르다.
천국에 대한 느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두운 곳에서 헤매느냐, 암중모색을 하느냐, 아니면 밝음 가운데서 행하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각 대학에서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의 부장님이 막내딸이 대학입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합격자 발표가 나가지고 어저께 서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 날아가지요.
그래서 회사를 딱 갔는데, 회사에 있는 부하직원인 Mr. 김이 실수를 했습니다, 제법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딸의 합격에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부장님의 마음이, 그 Mr. 김의 실수를 너무 너그럽게 받아 줍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런 실수를 통해서 성숙해 가는 거라고, Mr. 김이 그 실수 때문에 하도 기

가 죽어 있으니까 하아~! 기를 살리면서 성숙을 향한 필수적인 코스가 바로 이런 실수다, 괜찮아 다음에 안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반대로 막내딸이 재수를 했는데 대학을 떨어졌습니다.
아~! 이 부장님이 낙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출근해서 앉아 있는데 Mr. 김이 실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아 대학은 나온 거야 자네가? 아니 이런 실수를 이렇게 하면서, 밥 먹듯이 하면서 - 한번밖에 안 했는데도 - 월급 받아가겠다는 거야? 어디서 그렇게 뻔뻔한 마음이 생겼어? 아~ 화를 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Mr. 김의 실수는 성숙을 위한 필수코스입니까, 아니면 뻔뻔함의 극치입니까?
도저히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월급을 받아가겠다고 얼굴 디밀고 회사에 다니고 있는 뻔뻔합니까, 성숙을 위한 필수코스 입니까?
어느 게 맞는 이야기 입니까?
완전히 다른 판단이 나타나요, 다른 느낌.
그 Mr. 김의 실수에 대해서 부장님이 느끼는 느낌이 그 부장님의 마음상태에 따라서, 선행되는 마음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모든 증언은 다 참되다.
참됨의 기준이 뭐냐?
천국을 지금 먼저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주어지고 있는 상황, 주어지고 있는 일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가치들을 판단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증언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참됨과 거짓됨과 잘못됨의 기준이 가려진다 이겁니다.
내가 먼저 천국을 느끼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는 느낌이 충만할 때는, 이 세상에 대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생각해도 다 옳은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 세상에서 주어져 있는 상황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른다 이거에요.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상황을 먼저 느껴 버려요.
먼저 느끼면서 이게 진짜 오물인지 된장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게 아니라 제대로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 돼가고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일 났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난리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돈, 돈이 뭡니까?
돈에 대해서 내 마음이 먼저 느끼지 않습니까?
전부 암중모색이라는 거예요.
암중모색 여러분 한번 해 보셨어요? 어두운 가운데서 손을 더듬거리면서 헤매며 찾는 것.
이거 해 보셨습니까?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가족들이 내가 움직이는 이 불빛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불을 끄고 움직입니다.
그럴 때 저쪽에 있는 목욕탕을 가려고 할 때, 목욕탕 스위치에 조~그만 빨간 불빛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을 멀리서 보고 가려고 할 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게 암중모색이거든요.
돈이 뭡니까?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투자에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돈을 알까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장인 빌 게이츠가 돈을 알까요?
삼성의 이 건희 회장이 원불교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알까요?
저는 확언합니다.
모릅니다.

그럼 누가 돈을 압니까?
돈 한 푼 없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돈을 압니다.
돈을 알았기 때문에 유무상통을 한 거예요, 돈을 알았기 때문에.
돈을 알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런데 어떻게 그런 돈을 알았을까?

먼저 천국을 느낀 거예요 마음이, 먼저 천국을 느끼고 천국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천국 소망에 충만해 있었고, 천국을 마음에 갖고 있었고, 하나님아버지를 마음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니까 돈의 본질이 보입니다.
이거 조금이라도 마음에서 좋아했다가는 내 인생 망쳐지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구겨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건희 씨가 모릅니다, 빌 게이츠가 몰라요 돈을.
천국을 먼저 느끼기 전에는,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먼저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만지고 돈을 생각한다는 것은, 암중모색이고 봉사 코끼리 만지기랑 똑같다 이겁니다.

건강이 뭔지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무식한 소리입니다, 무지하고 몽매한 소리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을 제거하시기도 합니다.
전 그런 얘기를 암환자에게서 들었습니다.
'이 육체의 암이 내 마음의 암을 고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암환자를 저는 봤습니다.
천국을 먼저 느끼면 건강이 뭔지가 진짜 보이는 거예요.
천국을 못 느끼면서 생각하는 건강이라는 것은, 완전히 오물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나쁜 짓은 다 건강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해 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지요.
온갖 못돼 먹은 짓은 다~ 건강할 때 하는 것이고, 다리가 건강하고 손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할 때 하는 짓 아닙니까?
모르는 얘기지요, 그거 절대 몰라요.

자, 집안에 일이 생겼습니다.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서울대학이 뭔지 압니까? 몰라요.
천국을 먼저 느끼기 전에는, 서울대학에 대해서 느끼는 모든 느낌이 다 거짓된 겁니다.

다~ 쓰레기 같은 지식이에요.
하버드대, 하버드대 하는데 하버드대가 뭔데요?
천국을 먼저 느끼고 하버드대를 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먼저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흑신앙의 요체가 뭐냐 하면, 본문에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흑신앙이 뭐냐 하면 육체를 따라서 먼저 느낍니다.
만약에 돈이 없는 상황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상황을 육체가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먼저 느껴버립니다.
그 마음이 먼저 세상을 육체를 따라서 느낀 다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흑신앙입니다.
그리고 돈 달라 그럽니다.
지금은 돈이 없는 게 이득인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이득인데 자꾸 돈 달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손에 오물을 잔뜩 들고 이게 내 것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흑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게 없는 게 좋으니까 돈을 없애신 거예요.
돈을 주시면 이 돈을 쓸 일이 있으니까, function이 있으니까, 돈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그 기능 따라 쓰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좀 안 좋은 상태면 건강이 안 좋은 상태대로 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인데, 이 건강이 안 좋은 상태를 바르게 느끼려면, 먼저 천국을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천국을 먼저 느끼기 전에 건강이 없는 상태를 먼저 느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이 세상을 먼저 느끼고 하나님을 찾으면 흑신앙이 되어 버립니다.

먼저 천국을 느낀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면, 백신앙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과 가치의 본질이 다~ 밝혀집니다, 환~하게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을 먼저 느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세상을 먼저 느끼고 있는 마음상태로는 천국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짜장면을 먹은 입맛으로 배를 깎아 먹고, 사과를 먹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짜장면의 그 강렬한 맛이 있어서 배 맛도 없고, 사과 맛도 없고 다 없어집니다.
케익을 먹고 사과를 먹으니까 사과가 달겠습니까? 다~ 씻어 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세상을 먼저 느끼면서 천국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큰일 났다고 느끼고, 아! 좋다고 느끼고, 안정됐다고 느끼고, 불안하다고 느끼고, 이건 안 된다고 느끼고, 이런 모~든 세상에 대한 느낌을 다~ 십자가를 통해 제거하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세상에 대한 모든 느낌에 대해 죽고 나면,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천국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과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어떤 Emergency 상황보다도, 이 세상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천국을 느낀 다음에 그 Emergency 상황을 보면, '아하! 이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나한테 주신 거구나, 정말 정 코스를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을 먼저 느낀 다음에, 세상의 가치들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주어진 상황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백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음에 십자가를 받아들이므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느낌을 다 씻어내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천국과 하나님을 먼저 느끼게 해 주시고, 그 상태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대해 밝음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